서울주보

제2559호
2025년 5월 25일(다해)

부활 제6주일(청소년 주일)

파라다이스 밸리
존 라 파지(John La Farge, 1835-1910)
1866-68, 캔버스에 유채, 82.9×106.7cm
테라 재단, 미국

입 당 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5,1-2.22-29

화 답 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묵시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4,23ㄴ-29<또는 17,20-26>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김형균 스테파노 신부 |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위원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요한 14,28)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당신이 떠나야 보호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도 건네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 때문에 지상에 홀로 남겨져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마디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건네신 평화의 인사 덕분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금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마음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체험 덕분에 승천을 앞두고 평화를 남기고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모든 '죽음을 이기는 평화'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움츠려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범한 평화가 아닌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미사를 봉헌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라며 사제는 교우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평화의 인사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에게도 그 평화가 허락되길 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들리는 전쟁 소식과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또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더욱 힘들어진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이룩하신 평화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평화를 주소서

성화 해설

〈파라다이스 밸리〉(천국의 계곡)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화가가 가족과 지냈던 곳의 여름 경치를 바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풍경화로 느껴지지만, 어린양의 상징이 자연주의적 풍경과 영적인 연관성을 미묘하게 불러일으켜 미국 최초의 인상주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평화로운 들판과 오래된 돌담, 완만한 목초지에 고독한 어린양이 잔디에 기대어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여러 전쟁이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어 어린양의 평화가 온 누리를 가득 비추길 희망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그분, 데레사 님을 기리며

이경자 안나 | 소설가

양양성당의 데레사 님. 그분은 지금 지구에선 만날 수가 없습니다. 1936년 11월, 강원도 양양의 사천리에서 태어나서 2019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곱 아들을 남겨 두셔서, 아드님들이 어머니 1주기에 맞춰 글을 남겼습니다. 2020년 2월 22일에 펴낸 〈그리운 어머니〉가 그 책입니다. '회고와 추모'의 글인데, 비매품입니다. 저는 인연이 있는 세 번째 아드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하고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긴 책이 아니기도 했지만, 내용의 아름다움과 진실 때문에 푹 빠졌습니다. 마치 물속의 고기나 흙에서 자라는 풀, 꽃, 나무, 바람과 구름, 별처럼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의 그 명료한 생명감이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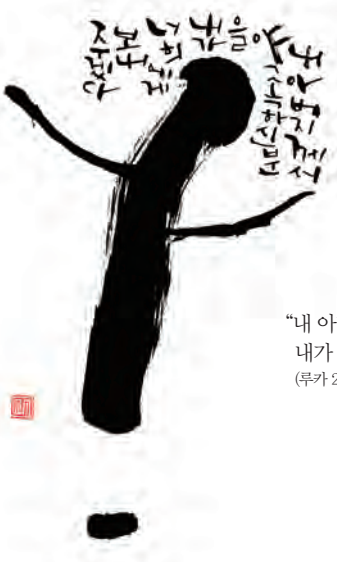
모든 아드님들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회고가 절절하지만, 제가 밑줄을 그어 가면 읽고 싶고 어디에 마구 퍼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여섯 번째 아들인 요셉 님의 그리움과 회고였습니다. 요셉 님은 성직자이십니다. 요셉 님은 스물다섯 가지의 기억으로 어머니를 회고했습니다. 그분의 일곱 번째 기억의 제목은 '용서가 특기이고 버릇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요셉이 불량배에게 머리를 다쳤지만 용서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면 안 된다고. 또 아버지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젊은 부부의 승용차에 추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젊은 부부를 용서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다고. 어느 날 동네의 어떤 집 앞에 매어놓은 맹견이 목줄이 풀려 어머님을 무참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너덜거렸지만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지 않았느냐고 묻는 아들에게 "그 순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생각이 났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 예수님의 상처에 저의 고통을 봉헌합니다." "개 주인에게 뭐라 하지 마라. 그 사람도 놀랐을 것이다. 용서해 주어라."

요셉 신부님은 사목을 할 때마다 속상하게 하는 신자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머니께 상담했습니다. "신부님. 그 사람도 신부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유산을 일곱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농토지만 그래도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유산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없느냐고 하자,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이 유산이시지요!" 하셨습니다. 순간 요셉 신부님은 어머니가 자신들의 유산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책을 다 읽고 책 표지에 실린 어머니 데레사 님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짧은 글에 데레사 님의 고난과 수난, 용서의 삶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밭고랑같이 주름진 얼굴에 깃든 평화를 전할 수도 없어, 그저 송구스럽습니다.

한컷 묵상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루카 24,49)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2018년작, 빔 벤더스 감독

희망영화관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김상용 도미니코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상실한다는 감각은 바삐 일상에 임하도록 강요받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감수성이기도 했거니와 저도 큰 차이가 없이 그저 먹먹함으로 잠시 가던 길을 멈추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음 날에야 비로소 아주 소중한 내 마음속의 누군가를 상실했다는 슬픔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진실한 감각은 어떤 사태를 맞이했을 때 반응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그가 견지했던 그 대상과의 인격적 관계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전례력으로 부활 팔일 축제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던 그날, 저는 어떤 '넘어섬'의 가닿을 수 없는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던"(루카 24,5) 그분의 제자들이 천사들의 선포로 "여기에 계시지 않는"(루카 24,6) 그분의 존재를 온 마음으로 벅차게 받아들인 그 사태가 파스카 신앙의 시발점이었듯이 저에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잃은 슬픔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무언가를 넘어서게 하는 신앙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었습니다. 명확한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신앙의 보고인 희망의 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간직했던 그의 말, 곧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로마 5,5)라는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삶은 지긋지긋한 부조리와 점철된 삶의 고통으로 충분히 주눅 들어 있지만, 우리는 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경계를 넘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타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라자로를 찾으신 예수님 앞에서 2천 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넘어서는 희망'을 노래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요한 11,22;필자 직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은 마르타가 고백한 바로 이 언어, 이 말, '그러나 지금도'를 상기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함부로 규정한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반어적으로 그 경계를 부수고 지금 이 순간 도래하는 하느님 섭리와 은총을 신앙하는 태도가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가장 잘 다룬 영화는 독일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2018년)입니다. 이 영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교회의 희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신의 안위에만 매달리느라 병든 교회보다는 가난한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멍들고, 상처 나고, 흙먼지에 더럽혀진 교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잃었지만, 죽은 이들 가운데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닌, 희망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그어놓은 어떤 안위의 경계를 넘어 '그러나 지금도' 우리 자신을 향해 격려하러 오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바로 그 희망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 (부활 신학)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현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더 나은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올 거라는 희망만 있으면 현재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지요. 따라서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이며 목적을 위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계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1885-1977)는 인간의 희망을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아님(Nicht)'에서 '아직-아님(Noch-Nicht)'으로 전환하는 운동이라고 말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민들의 '참정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주어졌습니다. 당시 평민들과 여성, 노예들에게 참정권은 없었지만, 이들은 이를 '아직-아님'으로 받아들였고, 투쟁과 저항을 통해 그것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블로흐에게 희망은 가능성을 무(無)의 상태가 아닌 열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성취, 소유, 성공은 멈춰 버립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종말이며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앞둔 인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죽음은 '아직 아님'이 될 수 없기에, 그 극복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주는 희망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부활을 체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경험은 영원한 삶이라는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멸할 세속적 미래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활의 미래를 희망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블로흐가 말한 것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실재하는 희망이며, 손에 닿지 않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와 영원을 향한 희망을 열어 주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나를

임여주 아녜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가정의 달 5월은 정겨운 달입니다. 많은 날을 함께 해 온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지요. 그러나 가족에게서 다정함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5월은 힘겨운 달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외롭고, 평소보다 조금 더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김개미 시인이 글을 쓰고 경자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시집 〈드라큘라의 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늘 혼자인 어린 드라큘라, 무서운 게 많은 꼬마 유령, 그리고 유령 옆에 늘 함께하는 눈이 여섯 개 달린 거미가 그 셋입니다. 어린 드라큘라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드라큘라의 모든 시에는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그 슬픔은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드라큘라의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는 소리는
어젯밤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젯밤 병에 담아둔 소리"(42쪽)

– 〈누가 부르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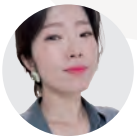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드라큘라. 인간이었던 시절의 추억마저 슬픔에 젖어있는 드라큘라에게 매일매일은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드라큘라를 멀리서 지켜보던 꼬마 유령은 자꾸만 드라큘라에 마음이 쓰입니다. 불 켜진 창문 앞을 서성이는 드라큘라를 벽 뒤에서 지켜보게 되고, 울면서 잠이 깬 드라큘라 옆에서 밤을 새우느라 눈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드라큘라는 알게 될까요? 누군가 곁에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귀를 막고 눈을 꼭 감은 채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낸다면 나도 세상을 밀어내겠다는 기세로 말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 방황하는 순간에도 늘 나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요.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나의 하느님, 나의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人'**은 우리 시대에 희망과 신앙의 표지가 되는 평신도들의 삶을 조망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교구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평신도들을 기리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기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간 기림 미사로 기억했던 평신도 다섯 분의 삶을 희망의 관점에서 조망하며 희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人

환자와 의사 사이: 선우경식 요셉



서희정 마리아 | 작가

"치료해! 치료해 내란 말이야!" 온갖 오물 냄새와 술 냄새가 경식의 코로 훅하고 들어왔다. 경식은 자신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다. 누군가의 분노를 마주하면 피하기 마련이지만, 경식은 오히려 더 오래 그 분노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걷히고 깊숙이 아픔이 보였다. 그랬다. 경식은 '요셉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늘 이렇게 아픔을 발견해 내곤 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가 된 이후부터 이런 바람은 돈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를 철철 흘려 실려 온 환자도 원무과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혈조차 해 줄 수 없었다. 영양부족으로 정신을 잃은 아이도 부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마조차 짚어줄 수 없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돈이 막혀 있었다. 이러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었다. "'나는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주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현실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환자를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하며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경식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하나 모아 길을 만드셨다. 동료 의사와 뜻있는 이들의 도움,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가톨릭교회의 도움으로 마침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요셉의원'이 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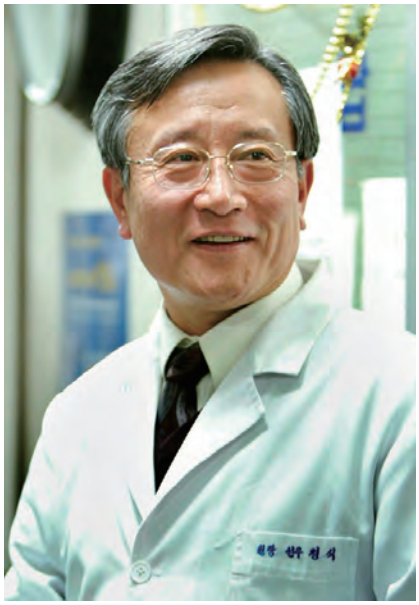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제공

"술을 먹고 오면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들어요. 술이 깨면 그때 치료해 드릴게요." 그제야 남자는 멱살 잡은 손을 풀었다. "마지막 식사가 언제예요? 찬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밥 한술 뜨세요." 남자는 요셉의원 한편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요셉의원'이 세워지자마자 그야말로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만큼 가난한 환자가 많았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식은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치료한다고 피를 뽑고 검사부터 했다는 게 죄스러웠다. 그때부터 '요셉의원'은 환자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이며 밥까지 챙겨주었으니, 병원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다. 경식의 멱살을 잡는 건 술 취한 환자뿐만이 아니었다. 제약 회사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병원의 법적 대표인 김수환 추기경님을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내지 못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도 돈이 환자와 경식 사이를 막아서고 멱살을 흔들어 대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 '의사를 의사로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환자가 여기 있는데 가긴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환자와 의사 사이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

덧)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선우경식은 2008년 4월 18일 선종하기 전까지 21년 동안 '요셉의원'과 함께했다.

오늘(5월 25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3년 6월 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 1984년 5월 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1993년 5월 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 2005년 5월 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교구청 알림

장애인의 희년-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미사

때, 곳: 5월 25일(주일) 14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6월 5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오병웅 신부(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협력사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향: 연대와 참여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때, 곳: 5월 29일(목) 19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02)727-2431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6월 모임

신청: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회비 없음)
주제: 희망을 만난 성경 인물-아브라함
때, 곳: 6월 10일(화) 19시30분~21시, 영성센터 B103호(경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제: 역사와 성서-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5년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례 교육

내용: '전례의 의미' 이해를 통한 적극적 미사 참여 및 평신도 역량 강화
때: 6월 3일~2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강사: 김종수 신부, 전호엽 신부 / **강의 내용:**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와 매일 기도, 미사 전례, 전례 주년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2025 예언서 6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과 유배 후 예언서 /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때, 곳: 6월 6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6월 13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배움이 남는 훈육법 '훈육 잘하는 부모되기'
강사: 서혜린 교수(숭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때, 곳: 6월 13일(금) 9시50분~13시, 교구청본관 501호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5월 26일(월) 10시~6월 5일(목) 4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민족화해위원회

1) 146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 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정봉 본당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5월 3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 문의: 02)3789-0815
때, 곳: 6월 22일(주일) 15시~18시30분,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6월 1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6월 2일(월) 13시30분~16시30분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포토아이리스 사진전: 1전시실
르마르디 그룹전: 2전시실
이설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 23일(금)~6월 1일(주일)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전화상담:** 02)727-2137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청년 환경 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6월 14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2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중독상담, 중독치유회복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내용: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중독상담 및 중독회복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마감: 주보공지 후 선착순(30명 내외)
주최: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문의(신청): 02)364-1811(alcohol1952@naver.com)

도보순례와 시복시성 기원미사 안내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접수 안내 일정
신청: 5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순례비: 회당 1인 7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비고
6월 3일(화)	2코스(생명의 길)	
6월 7일(토)	3-2코스(일치의 길, 노고산~삼성산)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6월 14일(토)	3-1코스(일치의 길, 당고개~절두산)	
6월 25일(수)	저녁愛 순례길 (성곽길 코스)	저녁 7시부터 시작
6월 28일(토)	1코스(말씀의 길)	

2) 시복시성 기원미사(210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권중심'
때, 곳: 5월 2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인준단체 알림

모임

ICPE선교회 흠숭기도회·미사
때, 곳: 6월 1일 15시, 과달루페(합정동)
문의: 010-9032-8022 / 카카오톡 플친: ICPE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팔로티회)
때: 5월 27일(화) 13시(강의)·14시(성시간)·15시(미사)
곳: 프란치스코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강의, 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5월의 멋진 날, 수도원 하루 피정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예약): 010-9816-0072
때: 5월 31일(토) 14시~성모의 밤 / 회비: 1만원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녹번동성당 성령기도회 무료 피정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 010-2452-3359
때, 곳: 6월 4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2층 소성당 /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11월 20일(목)~23일(주일) 3박4일
곳: 제주교구 성지(추자도 1일 일정 포함)
문의: 010-2378-9104 / 항공예약 사전접수

전진상 영성센터 4계절 성장 피정–여름
주제: 여름–자아의 성장, 마음의 상처와 회복 피정
때: 6월 20일(금) 17시~22일(주일) 13시(2박3일)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고난은 진정 하느님의 끈인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6월 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 27일	김현우 신부	6월 3일	박현민 신부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9월 19일~20일		
한국의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		
북해도	8월 25일~28일	아키타	9월 8일~12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5월 29일~6월 1일, 6월 26일~29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예레미야서	6월6일~8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6월 13일~15일, 7월 11일~1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7월 5일~6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2025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대피정
미사: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집전
강사: 김재덕 신부, 마진우 신부
때, 곳: 6월 7일(토) 9시~17시30분,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회비: 2천원(김밥·전자초 제공)
교통: 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100미터
문의: 02)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6월 15일~17일(추자도 포함)·7월 31일~8월 3일(우도섬 포함)·9월 20일~22일·9월 26일~28일·10월 21일~23일·11월 2일~4일·11월 8일~10일(추자도포함)·11월 17일~19일·11월 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전체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13일~15일, **제주섬 우도 포함**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일~13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

제138차	6월 13일(금)~21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9차	7월 11일(금)~19일(토)	
제140차	8월 8일(금)~16일(토)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 6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6월 21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	6월 27일~29일(2박3일)
대침묵 피정	7월 24일~27일(3박4일)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가정선교회 6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6월 4일(수) 10시 / 송봉모 신부, 이해인 수녀, 윤창호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6월 7일(토) 김성대 신부, 김경희 수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6월 21일(토) / 한철호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 15일~29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홈페이지(lukeglass.com) 참조
문의: 02)324-0852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요셉과 희망 / 말씀: 조성풍 신부
때: 6월 1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사이버성경학교 '희년' 이벤트
접수: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컨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경통독·길잡이 도형틀(마인드맵)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 내용: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준비물: 성경 / 회비: 교재비 2만원·참가비 1만원
때, 곳: 6월 4일부터 **오전반** 10시~12시·**오후반** 18시~20시(저녁 제공),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대상: 누구나 / 문의: 010-3248-9705 지혜의 샘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서유럽투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 21일(수)~30일(금)
전형일: 6월 14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집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시스띠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혼성)
지휘: 이호중 교수 / 남성단원 환영
곳: 시스띠나 음악원(신촌) / 문의: 010-7257-4255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명동대성당 주일 17시 미사 / 연습: 매주(화) 19시30분
대상: 초2~5학년 남자(가톨릭 신자) / 010-7242-6027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 9일(월) / 문의: 010-9836-8998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5년 예정) 초3~초6 가톨릭 신자 /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6월 22일(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6월 19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5월 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5월 30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6월 7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5월 30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5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접수) / 회비 없음
때, 곳: 5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6월 7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5월 2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병규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평만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가톨릭여성연합회 5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방부현 신부(성 요한 수도회)
때: 5월 27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연주회
주제: 팔레스트리나 탄생 500주년 기념
때, 곳: 6월 19일(목) 20시, 반포4동성당 대성전
지휘: 신기호 신부 / **후원:** 반포4동성당
문의: 010-9464-0680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바보나눔터와 함께 사랑을 전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을 이어가고 싶은 가게, 식당, 병원, 학원 등 중소상공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김수환 추기경님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문의: 02)727-2506, 7 바보의나눔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직원모집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디딤자리 직원 모집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 / **문의:** 02)987-6009
디딤자리 홈페이지(http://www.didimjary.com) 참조

꾸르실료 회관 주방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대상: 경험자 우대(계약직) /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명일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 5일(목)까지 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481-0211

서울대교구청 전산정보실 직원 모집
분야: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DB관련(PostgrelSQL·MSSQL) 업무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6월 3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구술시험, **3차** 최종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서울대교구청 주방근무자 모집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직원모집 참조

특수사목 사제관(성북구)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6월 3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성 앵베르 센터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꼬 수녀회	6월 1일(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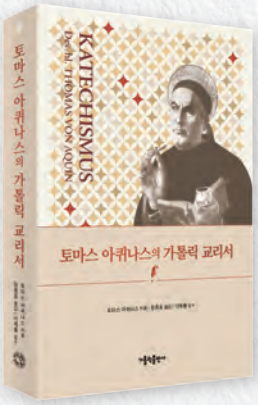
이경상 주교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직접 번역하고 소개하시는 책

기도, 사랑의 여정

하느님과 만남을 위한 기도 안내서

마누엘 루이스 후라도 지음 | 이경상 옮김
1만8천원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톨릭 교리서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 3만4천원

성경을 토대로 전하는 가톨릭 교리의 정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들려주는
명확하고 간결한 교리 강의

예수 성심 성월

이름 없는 순례자

최익철, 강태용 옮김 | 1만8천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천하신 고전!
"우리는 그의 항구함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한 순례자의 이야기

예수 성심 성월

성심의 메시지

이재현 옮김 | 1만2천원

요세파 수녀님에게 발현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 모음집

"나의 성심은 완전한 사랑 자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책

예수 성심 성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예수 성심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천8백원

"묵상으로 주님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황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달

◉ 2025년 상반기 '신자 재교육' (성경 I)

성경을 통해 일상의 삶과 신앙을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신자 재교육을 개설합니다.

·기 간 : 6월 14일~8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6시 (7월 26일 / 8월 2일 휴강)
·개 강 : 6월 14일(토) 오후 4시 / 교구청 501호
·강 사 :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김 오틸리아 · 조 막시마 수녀)
·내 용 :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
·수강료 : 30,000원 (환불 불가 / 개강 당일 현장 ☞ 현금 납부)
·접 수 : ① 현장 접수 : 5월 25일(일) · 6월 1일(일) 성당마당 부스 / 오전 10시 ~ 오후 6시 미사 후
② 방문 접수 : 5월 18일(일) ~ 6월 8일(일) 본당 사무실 내 신청함 제출 (월요일 휴무)

◉ 청소년 주일학교 봉사자 모집

26년도 초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키고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19세~29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청소년 교리교육 및 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사 봉헌
·모집기간 : 4월 20일(주일) ~ 5월 25일(주일)
·문 의 : 본당 사무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명동대성당 3545+ 청년성가대 '카이로스' 단원 모집

·모집대상 : 1982년생~1991년생 남녀 가톨릭 신자
·연 습 :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활 동 : 토요일 오후 7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유튜브 '명동대성당 3545+카이로스 성가대')
·모집기한 : 6/7(토)까지 입단 신청서 및 교적증명서 제출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문 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 명동성당 카이로스성가대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단원 추가 모집

·대 상 : 가톨릭 신자(1980년 이후 출생자)
·모집인원 : 남성파트 테너 0명, 베이스 0명
·오디션 : 6/14(토) 14:3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오디션곡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중 1곡 (자유곡 악보 2부 준비)
·문 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동가톨릭합창단 검색
·접 수 :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공지 참조 또는 QR코드 스캔→ (가톨릭합창단 홈페이지)
·마 감 : 6/12(목)까지 ※교적증명서 제출 필수!

◉ 명동대성당 3545+ 청년성서모임 말씀의 봉사자 모집

· 대상 : 창세기 연수 수료 후 탈출기 수료 혹은 탈출기 그룹공부 중인 (82~93년생) 천주교 청년신자 ※교적증명서 제출필수/미혼·기혼 무관
· 지원방법 : 네이버 카페 /ourbible3545 가입 ☞ 공지참조
· 마감 : 6/15(일)까지
· 문의 : 온라인 카페 또는 logos3545@naver.com

◉ 명동대성당 '성서백주간' 추가 모집

본 모임은 백 주간에 걸쳐 구약, 신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요일(시간)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목요일 (오후 3시~오후 5시)
일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신청접수 : (이름, 세례명, 본당, 신청반 요일-시간) 문자 메시지로 ☎ 010-8654-4501
·모집기간 : 6/30(월)까지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 · 청장년 레지오 마리애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2838-6401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회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8611-4097

◉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옹기장학회 월례미사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회원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일시/장소 : 5/26(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김병규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김평만 신부님
·문의 : 옹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 오 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5	봉헌 : 246, 511, 211	성체 : 188, 163, 179	파견 : 236

◉ 2025년 6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나창식 (안드레아) 신부
주일반	오전 10:00	교구청본관 401호	김 가브리엘 수녀

· 수요/주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6/1(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6/4(수) 19:30, 6/8(일) 10: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에는 본당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지향이 봉헌됩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 5/4(일) 천사 모금액 12,659,000원
본당지원 1,265,900원
· 5월에는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마고네지역아동센터', '마자렐로 센터'에 천사의 사랑기금 (13,924,900원)을 전달했습니다.

◉ 성모 성월 기도회

성모 성월 마지막 기도회에 함께하시어 성모님을 닮아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천 시 취소·묵주 지참)
·일시/장소 : 5월 26일(월) 오후 6시 미사 후 성모동산

◉ 성모 성월 꽃 봉헌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희년!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명동 정오음악회

·일시/장소 : 5월 29일(목) 낮 12시 / 대성전 청동문 앞
·주제 : 야외 축제 음악 퍼레이드 / 브라스 밴드

《 성모의 밤 》

화창한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본당 주보(主保)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한평생을 기리고 본받으며, 이 시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성모의 밤을 아래와 같이 봉헌합니다.

·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8시
· 장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 주례 : 명동대성당 주임신부님

◉ 2025년 명동대성당 생명교리 강좌

·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교우
·강좌 : 6월 29일 ~ 7월 27일 (매 주일) 5주간
14:00~16:00 / 90분 수업, 30분 질의응답
·장소 :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2층 대강당
·교재 : 추후 공지 (☞ 각자 구입하여 지참)
·접수 : ① 성당마당 부스 - 6월 15일(주일) 10:00~17:00
② 본당 사무실 - 6월 17일(화)~22일(주일)
※신청 시 '교적증명서 1부' 제출 必
※본 생명교리 강좌를 5주 모두 빠짐없이 수강 시 견진교리로 인정, 2025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10월 26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시 견진교리로 인정 안 됩니다 ! (선착순 100명)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인 오늘은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홍보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6월 1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제59차 홍보 주일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12-5/18).....16,579,000
- 부활 제 5 주일 헌금.....41,778,880
- 감사헌금 (5/12-5/18).....1,158,000

김 글라라 / 류 가브리엘라 / 백 안젤로 / 이 카타리나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 최 아녜스 / 최 힐데가르트 우지민

미사(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나의 스타(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행복합니다.